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늘은 부모 주일입니다.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로서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 신앙의 토대 성경공부를 오는 17일(월) 오후 7시부터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신청한 성도들은 참여 바랍니다(새로 신청할 성도들도 함께).
3. '성경 정독 100일 운동'이 5월 12일(화)에 마무리됩니다. 동참한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성경 정독은 마쳤지만 지속적인 성경 묵상을 위해 '주간 성경 묵상'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주보에 게재합니다(주보 금주의 암송 말씀란).
4. 정부 지침에 근거한 Lockdown 이 예정대로 12일(화)일부터 2단계로 내려오면 모든 공 예배와 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5. 주일예배는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으로 전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 주보 참조).

온라인 헌금 방법: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6. 박영선 A 집사 가정 이사했습니다. Unit 4, 8 Tawera Rd Greenlane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5월 교회사역일지

5월 3일(주일) 자녀주일
5월 10일(주일) 부모주일
5월 31일(주일) 권사 기도회, 유아 세례식

5월 기도 순서

5월 17일 (주일) 이광희 A 장로
5월 20일 (수) 박제란 권사
5월 24일 (주일) 김철재 집사
5월 27일 (수) 박후임 권사

5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이기중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22권 19호 2020.05.10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오후 3시 15분

주 일 예 배		1부 오후 1시 (온라인 예배)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시편 128:1-4	인도자
✧찬 송	-----	8장	다함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	279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	-----	손조훈 집사
성 경 봉 독	-----	창세기 6:1-8	인도자
찬양대찬양	-----	이 세상 험하고	나무삼자가찬양대
설 교	-----	그러나 노아는	이태한 목사
찬 송	-----	35장	다함께
헌 금 기 도	-----	-----	인도자
교 회 소 식	-----	-----	인도자
✧응 답 송	-----	310장 (1,4절)	다같이
✧축 도	-----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입금으로 합니다.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	-----	문일숙 집사
성 경 봉 독	-----	-----	고린도전서 3:10-15
설 교	-----	-----	삶의 터잡이
-----	-----	-----	이태한 목사
찬 송	-----	-----	95장
주 기 도	-----	-----	다같이

선교란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온전한 회신을 하자마자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고 두 해가 지난 고1 무렵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서원하며 훈련 중에 ‘캄보디아 선교사 동원’ 영상을 본 후 “꼭 가야 하나” 아끼는 목사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여섯 식구 대가족이 캄보디아에 온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10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심장을 뛰게 하는 기억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던 ‘폐악뜨라’라는 작은 아이에게 생명을 찾아 준 일입니다. 그 일은 오늘날 사역의 밑거름이 되었고 꼬마 여아는 무럭무럭 성장하여 생명나무 유치원을 졸업하고 엄마와 함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려운 일은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불교, 힌두교의 혼합주의적 종교와 문화로 둘러싸인 인생에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가난에 찌든 저들에게 복음은 돈과 빵 앞에 힘을 잃는 듯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선다는 사실은 몽상에 지나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보란 듯이 오직 예수의 복음이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확실한 믿음의 실상으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날 때 선교사는 가장 큰 보람을 얻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로 소중한 생명 셋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한 분은 70세 고령의 성도입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셨기에 저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분은 그토록 애를 썼지만 끝내 예수님을 모른 채 가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삶의 지형을 바꿔 놓고 있는 요즘, 캄보디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 휴교령과 5인 이상의 모든 집회가 보류되었습니다. 주일예배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가정예배와 소그룹 예배로 드린 지 3주 째입니다. 고난주간은 물론 부활주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고 심지어 이 나라 캄보디아 새해 연휴가 무기한 연기 되었습니다. 한국의 설 연휴를 무기한 것과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코로나19로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처럼 설령 대 유행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든 아니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경륜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소식 올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 이형식, 이은주 선교사의 영육의 강건함과 자녀들에게 지혜가 더하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세상의 혼란스러움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2.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위로와 예방과 치료제 개발을 힘쓰는 자들에게 지혜가 있도록.

나눔란

2020년 5월 3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에녹의 동행이 주는 교훈> 창세기 5:21-32

에녹은 자식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65세에 므두셀라를 낳은 후(5:21)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5:22).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갈 길을 결정했던 광야 40년은(출 13:21-22)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동행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며 날마다 하나님을 호흡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동행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에녹이 낳은 므두셀라의 이름 뜻은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은 지는 것이기에 므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을 알고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에녹은 당시 사람들의 1/3밖에 살지 못했지만 에녹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것입니다(5:24).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요한복음 5:24) 말씀대로입니다. 에녹처럼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동행은 고난의 삶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처럼(히 12:7-8)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고난을 겪은 자가 요셉입니다(창 39:2). 요셉은 팔려가 노예가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는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셨고 법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창 39:23)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이란 환경이 아니고 비록 병들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삶의 고난에 면죄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롬 8:35).

3) 마지막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녹의 이름에는 ‘전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므두셀라가 태어난 이후에야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주께서 못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유 1:14-15).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기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임박하는 진노를 알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히 11:6). 먹고 마시는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과 달리 에녹은 하나님을 찾으며 궁극적 가치를 하나님께 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므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5:25)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며(5:28) 므두셀라가 969세로 죽던 해에(5:27) 곧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7:11).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려는 긍휼 때문에 므두셀라를 그토록 오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 주일인 오늘 자녀 들을 바라보며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에녹의 삶에서 얻은 교훈대로 사는 복된 갈보리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간 성경 묵상: 고린도전서 9장 - 에베소서 1장

금주의 암송 말씀: 창세기 6: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